보성교육청, 초·중학생 '생각의 힘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운영

'학교-교육지원청-공공도서관' 협력으로 연계 실시
'학교로 찾아가는 책놀이 프로그램' 총 142회 진행

보성교육지원청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의 일환으로 3월부터 지금까지 초·중학교의 희망을 받아 '학교로 찾아가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총 142회 운영하였다.

'학교로 찾아가는 책놀이 프로그램'은 보성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학교-교육지원청-공공도서관'이 협력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리딩푸드, 리딩아트, 리딩보드 등이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1월 관내 교사, 사서교사, 공공도서관 사서, 교육지원청 순회사서 등이 함께 모여 추천도서목록을 제작하여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특히, 지구 생태계 환경 파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시급함에 따라 '생태환경교육'에 중점을 두어 목록을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과 함께 친환경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였다. 또, 운영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그림책 교육·리딩푸드·리딩보드 놀이 지도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갖춘 지역민 2명을 강사로 위촉하였다.

책놀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과 그림의 조화 속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해보는 리딩아트, 책을 읽고 주제와 연관된 요리 활동을 연계하는 리딩푸드,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환경교육용 보드게임을 해보는 리딩보드를 체험·실습해봄으로써 책과 친해지고, 깊이 있는 책 읽기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책놀이 프로그램은 학년 수준 및 발달단계에 따라 내용을 변형 및 재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학급당 2시간씩 최소 2~4회기까지 찾아가 깊이 있는 독서인문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희망한 학급의 선생님들은 책놀이를 한 학기 한 책 읽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매시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어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딩푸드에 참여한 보성초 박00학생은 '배달 음식을 시키면 엄마가 항상 플라스틱 쓰레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검정 토끼를 읽고, 빠네파스타를 만들면서 빵이 그릇처럼 사용될 수 있다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다음 책놀이가 매우 기대된다고 하였다.

전희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정도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인문교육이야말로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의 책 읽는 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지금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구례북초, 건강·영양체험 부스 운영

4학년 대상, 7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

구례북초는 최근 4학년을 대상으로 영양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체험을 통해 나와 지구를 위한 채식을 직접 알아보고 느껴봄으로써 건강과 영양 향상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은 7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채소, 과일이랑 친해져요〉는 채소의 좋은 점을 알고 내 몸이 좋아하는 채소를 찾아보는 체험이다. 둘째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요〉는 달걀판 놀이를 통해 푸드 마일리지의 개념과 로컬 푸드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알록달록 컬러 푸드를 먹어요〉는 컵 과일 만들기 체험부스인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컵에 형형색색의 야채와 과일을 담아 보고 컬러 푸드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텃밭 채소를 키워요〉는 건강새싹키트를 활용하여 직접 씨앗을 심고 가정에 가져가 채소를 키워볼 수 있다. 다섯째 〈올바른 간식을 선택해요〉 체험부스는 안전한 먹거리 포스터를 확인 한 후 건강 간식 낚시 놀이로 안전한 먹거리를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여섯째〈영양상담〉에서는 3명의 영양교사가 1:1로 학생들의 식습관을 점검해주고 건강한 식습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필요한 채소, 과일 양 알기〉는 직접 채소와 과일의 무게를 가늠하여 저울에 재봄으로써 어린이에게 필요한 일일 채소량 350g을 맞춰보았다. 3반 김**학생은 "이번 영양 부스 체험으로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어요. 특히 감자를 먹으면 귀에 좋다는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루에 먹어야 하는 채소와 과일 양이 많았어요."라며 놀라워했다.

이번 영양체험 부스운영을 통해 영양교사 장강순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의 필요성을 알고 골고루 먹는 습관, 올바른 간식을 선택하는 바른 식생활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였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흥교육청, 학부모회연합회 사랑나눔 자선 바자회 개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이번 행사 준비

장흥교육지원청 학부모회 연합회는 지난 12일 장흥토요시장에서 '사랑나눔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학부모회연합회에서는 지역연계 활동으로 연말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떡, 생강청, 작두콩차, 도라지정과 등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판매하여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었고,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도 되었다. 자선 바자회의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흥학부모회연합회 회장 이미희는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환경을 조성하려는 뜻깊은 행사로 참여하는 내내 장흥학부모회 연합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졌다."라고 하였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교육청, 강진 작은학교 '홍보의 날'·'방문의 날' 운영

강진교육지원청은 최근 작은학교를 맛보고, 면지역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 작은학교 '홍보의 날'과 '방문의 날'을 운영했다.

"교육맛집, 작은학교에서 꿈을 펼쳐요" 주제로 진행

'교육맛집, 작은학교에서 꿈을 펼쳐요~'라는 주제로 강진 작은학교를 소개한 이 프로그램은 홍보와 방문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제 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10월 24일~11월 6일)와 연계해 진행된 홍보활동은 강진 초·중 18개 학교와 10개의 마을학교가 양말목 공예, 에코백, 다육이 체험부터 블루투스 통신 체험까지 연인원 1000여명의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1월 14일과 15일에는 읍내 학부모와 지역민 50여명과 교육지원청 직원 10여명이 4개 버스에 나눠 타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 작은 학교를 살펴보았다.

이날 행사를 추진한 최광희 교육장은"우리 지역이 지방소멸위기 지역이지만, 교육적 불균형이 심각하다. 1:1 맞춤형 교육이 보장된 작은학교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면지역과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자치에 힘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